

보리향기의 추억여행... 군산콩당보리축제 대성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체험 콘텐츠 '풍성'

14회째를 맞이한 군산콩당보리축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군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를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보리향기를 찾아 떠나는 군산여행'이란 주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미성 국제문화마을 입구 보리밭에서 열렸다.

군산시와 콩당보리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용배, 성락도)는 올해 행사를 위해 새롭게 단장한 축제장 규모 확대와 시민 참여형 체험을 늘리고 가족들과 연인들의 추억은 기우는 컨셉으로 진행해 군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전통놀이, 공연행사 등 12개 체험마당에서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7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체험 콘텐츠가 한층 풍성해져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여기에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원예작물 화분 분양과 군산쌀 특별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군산수제맥주 시음회, 흰쌀보리빵 '보리진포홍보관', 7080 추억의 노래방 등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어린이 물고기잡기 체험, 당나귀 마차체험, 보트체험, 잔치음식 체험 등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진행된 콩당어



14회째를 맞이한 군산콩당보리축제가 군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를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린이 콩꾸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글짓기 대회, 새싹보리 기르기 등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경진과 무대공연을 마련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임창정, 노라조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힘내라 군산' 특별 공연으로 행사기간 연일 행사장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법안 국회 통과 공동대응

군산시가 올해 1월 발의된 경제위기 지역 지원법안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위기지역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 9개 위기지역 지자체관계자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국회상임위 소속 의원 설득작업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전국 9개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공동대응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9개 위기지역 실무 공무원들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 산업동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설득 방안과 지자체장 국회 상경 기자회견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29명)에 대해 해당 시군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는데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 본격적인 국회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기지역이 전북, 전남, 경남, 울산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소속이 다양한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만큼 지역 간 연대 강화로 법안통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특별법은 9개 위기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하는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법안이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내 업체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경제위기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변호사시험 결과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지난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에 따른 대학본부 차원의 비상대책 회의를 2일 오후에 열고, 합격률 저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본부 주요 보직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체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맹수 총장이 직접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학습증진 프로그램 시행, 진급 및 졸업시험 개선, 학생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박맹수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할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대학본부에서도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원광대가 추구하는 도덕적 법조인 양성이라는 궁극적 목표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익산시, 출향시민 초청행사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서동축제 개막을 맞아 지난 4일 익산 공 워딩홀에서 출향 익산시민 120여명을 초청해 '출향시민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경익산시향우회, 재인천익산시향우회 등 총 5개 향우

회와 정현율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장, 최낙환 익산시에향운동본부장 등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환영식을 가졌으며 환영행사는 주요 시정업무설명, 감사패수여,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정현율 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출향시민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추억도 되새기고 서동축제에서 백제의 숨결을 만끽하시고 돌아가셔서 익산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시,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포럼

군산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포럼'이 최근 군산리조트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서 군산항의 상생발전 전략 재조명 하고 있다.

군산항이 제도약하는 초석이 되는 시작으로 4건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의 진행됐다.

특히 군산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대가 군산항 해운 물류 관련 정보의 집적화 및 현안사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관 학 업무협약을 통하여 향후 군산항의 다각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항만물류 기업 육성과 전략적 물동량 유치를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 관계자는 "해운항만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산항은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어려운 여건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의견을 나누고 절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영유아 어린이날 놀이체험행사 성료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익산시 지역)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온마음 도란도란 어린이 놀이세상'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영유아 가족들의 오감을 만족시켜며 뜨거운 호평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에는 유관기관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일광보건대와 협력해 풍성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다.

성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행사에 호평을 받은 어린이 뮤지컬, 요리체험, 미술체험, 놀이체험관 무료 이용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어린이 뮤지컬 '치키치키 할머니와 마법치술'은 치아 건강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해 재미와 교육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었고 영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기 위해 준비한 화분 케이크 만들기, 모닝빵 샌드위치 만들기, 자석 냅사 놀이 만들기, 밀짚모자 만들기, 나만의 양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준비된 재료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활용한 대형 에어바운스도 설치됐다.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건강한 과일나무 만들기' 체험부스를 설치했다.

특히 영유아들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설치된 에어바운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 가족들의 호평을 얻었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진행했다.

또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만들기 재료와 작품을 판매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플라마켓을 운영했으며 영유아들에게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좋

정현율 시장은 "이번 축제는 영유아 가족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익산 시민의 육아를 나누고 다양한 영유아 가족이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민불편 예방 '건설공사 현장 감사'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2분기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 복구지역 침하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교통통제 요원 미배치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공사 진척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예방조치, 기타 공사 시행 관련 민원발생 가능 여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건설(건축)공사장 21곳으로 주로 도로굴착이나 연면적 1000㎡ 이상 공장건축 현장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감사를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최소화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현장에 대상으로 공사 현장 안전대책 적정시행과 소음·비산먼지 등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

/익산=정인천 기자

익산시, 체육공원 분수대 본격 가동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일부터 도심 4개 공원, 6개 분수대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영등시민·배산·수도산 체육공원 등 4곳의 분수대 시설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5차례 운영된다. 기상상태와 주요행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한여름에는 도심공원 내 무료 풀장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체육공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차례 (6:30, 19:00, 20:00, 21:30), 총석정 분수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머지 3곳은

시 관계자는 "분수시설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